

# 要約

## I. 經濟一般

### ◆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1999년 10.7% 성장률 기록

1999년 경제성장률은 10.7%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성장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소비보다는 설비투자 및 수출증가가 주도하는 등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 보면, 중화학공업뿐만 아니라 경공업의 생산도 꾸준히 늘고 있고, 재고의 감소폭도 줄어들고 있다.

두자리 수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정적이었다. 1999년 4/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를 기록하였고, 1999년 전체로 0.8%를 기록하였으며, 생산자물가도 1999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0.5% 상승하였고, 1999년 전체로는 -2.1%를 기록하였다.

최근의 경기회복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변수들이 경

기와 동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경기변동 이후 2분기 정도까지는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의 경기호조는 적어도 2000년 상반기까지 고용사정에 영향을 미쳐 고용지표들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II. 雇傭

### ◆ 고용사정의 급속한 회복

1999년 1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V자형 경기회복을 보임에 따라 고용사정은 개선되었지만 내용면에서 고용 및 실업의 질적 수준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제활동인구는 1999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4.0% 증가를 보여 0.9% 증가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하였다. 1999년 전체로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999년 4/4분기에 20, 30대 연령계층에서 각각 1.6%, 1.7% 감소하였으며, 1999년 전체로도 이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현저하였다(-3.7%, -1.4%). 20, 30대 연령계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40대와 60대 연령계층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999년 4/4분기에 40대와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각각 6.7%, 8.8%였으며, 1999년 전체로도 5.3%, 6.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4/4분기 61.2%로 전년동기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하였으나, 1999년 전체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4/4분기 74.8%로 0.1%포인트 낮아진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4%로 1.4%포인트 높아졌으며, 1999년 전체로도 남성은 74.4%로 0.8%포인트 낮아진 반면, 여성은 47.4%로 0.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남성의 경우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 ◆ 임시 및 일용근로자 증가

1999년 4/4분기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5.2% 증가를 보였으며, 1999년 2/4

분기에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어 1999년 전체로 취업자는 1.4%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취업자를 보면, 1999년 4/4분기에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9.6%), 금융·보험 및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2%), 건설업(7.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7%)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999년 연간으로는 건설업(-6.5%), 농림어업(-5.3%)을 제외하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사업서비스업 등은 남성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회, 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여성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있어 산업별 취업자의 증가도 성별로 달리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 대부분이 임시 및 일용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 4/4분기 임금근로자의 증가분 859천명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927천명이었으며 상용근로자는 69천명 감소하였다. 따라서 1999년 4/4분기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전년동기의 51.0%에서 47.1%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9년 내내 지속되어 1999년 전체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48.3%에 그쳐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 비자발적 실업자 비중 감소

한편 경기회복의 가속화로 실업자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4/4분기 실업률은 4.6%였으며, 1999년 전체로는 6.3%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및 전년에 비해 각각 2.8%포인트, 0.5%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전직실업자 중 이직시기가 1년 미만인 실업자의 이직원인을 보면, 자발적 실업자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1999년 4/4분기 자발적 실업자의 비중은 39.2%로 전년동기에 비해 13.7%포인트 늘었으며, 1999년 연간으로도 전년에 비해 9.3%포인트 늘어나 31.6%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업구조를 보면,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실업자 비중 및 이른바 '실망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실업자 중 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1999년 2/4분기 이후 다소 줄어들어 1999년 4/4분기 3.0%, 1999년 전체로는 3.8%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높아졌다. 또한 2000년 1월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구직단념자는 240천명으로 전월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賃金 및 勤勞時間

◆ 1999년 임금상승률 12.1%

경기회복에 힘입어 1999년 4/4분기 전산업 평균임금은 16.1%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3/4분기의 15.6%에 이어 하반기 들어 임금상승폭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99년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998년 마이너스 2.5%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12.1%를 기록하였다. 1999년 4/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로 나타났고, 1999년 연평균으로는 0.8%를 기록하여 고성장애 비해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1999년 4/4분기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4.6%로 나타났으며, 1999년 연평균으로는 11.1%를 기록하였다.

1999년 평균 협약임금 상승률(2.1%)이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었던 반면에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00년도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0년 임금교섭을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교섭임금에 대한 보상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특히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요구율 및 제시율이 예년보다 높아 2000년도에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 ◆ 특별 및 초과급여 상승폭이 두드러져

1999년 연평균 임금상승률을 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 상승률에 비해 초과급여나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특징이다. 초과급여는 가동률 상승에 따른 초과근로시간의 증가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1996년과 1997년 연평균 초과급여 상승률이 각각 4.7%, 1.4%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1999년은 30.1%를 기록하였다. 특별급여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성과급의 확대와 1998년에 미지급된 특별급여의 회복 등에 기인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1999년 특별급여 수준도 1997년의 334천원보다 높은 354천원을 기록하여 1998년의 특별급여 감소분을 보충한 것 이상으로 지급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1999년 정액급여 상승률은 6.1%를 기록하여 1996년(12.7%)이나 1997년(9.4%)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았다.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상승률이 높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1999년의 임금상승률은 수치면에서는 높지만 지난 2년간 감축되었던 임금의 회복과 초과근로의 증가 및 성과증대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 추세가 2000년에도 이어질 경우 물가나 경쟁력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 ◆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1999년 사업체규모별 임금상승률 동향을 보면, 대규모일수록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500인 이상 규모에서 1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00~499인 규모(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임금수준은 10~29인 규모에 비해 1997년에는 1.38배 수준에서 1998년에는 1.41배로 그리고 1999년에는 1.47배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 ◆ 가동률 상승에 기인하여 근로시간 지속적으로 증가

1999년 연평균 근로시간은 208.1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8.9시간(4.5%)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1년 208.2시간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근로시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경향을 보여왔으나, 1999년 경기회복에 따른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1998년에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이 많았던 상태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필요인력을 보다 많이 확대하기보다는 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

간의 동향을 내역별로 보면, 1999년 전 산업의 연평균 정상근로시간은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하였으나 초과근로시간은 23.4% 증가하였다.

#### IV. 勞使關係

##### ◆ 정부, 2000년 종합실업대책 수립

정부는 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대책은 실업안정세 유지, 실업대책 효율성 및 수혜자 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그리고 특성별 실업대책 강화 등 4개항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통해서 단기일자리 제공함과 동시에 실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를 확충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조기정착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성별 실업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 ◆ 노사단체의 정치활동 참여

16대 총선을 앞두고 노사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노동계의 경우 한국노총은 위원장이 정계진출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의 제휴를 통해서 정치활동참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재계도 정치활동 전담창구로 의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공식적으로 돌입하였다.

노동계의 정치참여는 사회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정치참여가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속단하기 이르다. 특히 한국노총의 경우 임·단협과 총선투쟁과의 결합이라는 투쟁계획이 정당을 통한 의회진출로 방침이 바뀌면서 투쟁스케줄에 혼선을 빚고 있기도 하다.

##### ◆ 노동조합 내부의 실리주의 경향 등을 둘러싼 갈등 표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계 내부에서 실리주의 경향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서울 지하철노조로서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간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노조집행부와 대의원간의 내부갈등이다. 현 집행부의 정책노선이 과거 서울지하철노조가 취해왔던 정책노선과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번 서울지하철노조의 행보는 향후의 노동운동 방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례는 임원선출과정에서의 갈등이다. 먼저 사무금융노련은 선거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규약을 변경하는 등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반면 간선제로 선출된 대의원대회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전국철도노조 등에서는 직선제로의 변화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따라서 임원선출과정에서의 이러한 갈등은 다른 노조들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노동조합 지도체제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사업

최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능교육교사노조가 신고필증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위탁계약직의 신분으로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학습지 교사가 공식적으로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계기가 제공되었다.

따라서 타학습지 업체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사업을 정착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위탁계약직 비정규 근로자들은 분산업무로 인하여 일체적인 행동이 어렵기 때문에 조직화사업이 용이하지 않다

는 점이다. 또한 위탁계약제 폐지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 ◆ 양보교섭에서 되찾기교섭으로 전환

1999년도 단체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안정을 담보로 한 양보교섭 위주의 협상을 벌여왔던 노조의 협상전략이 하반기 이후부터는 되찾기교섭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타결된 임금수준은 전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대신 단체교섭은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단체협약 관련 노사분규가 크게 증가하는 등 불안한 노사관계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2000년도 노사관계에서의 핵심 쟁점 사항은 무엇보다도 임금관련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장근로자들의 높은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와 IMF 경제위기 이후 삭감된 임금에 대한 보상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사단체는 2000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율 및 제시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동계는 두 자리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한 반면에 경영계는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는 등 노사간의 임금인상에 대한 입장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